

# Cinematic Moment

영 화 적 순 간

2020 대구 영화 학교 결산 자료 집

2020 대구 영화 학교 결산 자료 집

# Cinematic Moment

영 화 적 순 간

## CHAPTER1

### 신규영화전문인력양성과정 ————— 02

과정안내 04 커리큘럼 05 강사진 06 강의사진 07 졸업작품메이킹스틸 08  
졸업작품소개 12 졸업생에세이 20 1기 졸업생 활동 44 축사와 에필로그 46

## CHAPTER2

### 현장영화인역량강화프로그램 ————— 48

## CHAPTER3

### 비즈니스&마스터클래스 ————— 52

# First Step to the Cinema

CHAPTER 1 신규영화전문인력양성과정



## COURSE OVERVIEW

### 모집공고 2020.06.08

대구·경북 거주자, 키스태프 경력 3년 이하  
1차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에세이, 전공역량  
2차 심층면접평가

### 입학식 2020.07.08

### 개강 2020.07.13

**전공수업** 주당 12시간 강의 / 이론 제작 연출 촬영 각 1회 / 총 10주 과정

### 네트워킹데이 2020.08.12

1기 졸업생, 2기 재학생 간담회  
1기 수료작 사례발표 및 Q&A

### 강의재개 2020.09.18

일부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여 강의재개

### 최종 시나리오 평가 2020.10.05

**심화과정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팀별멘토링 / 총 10주 과정



### 합격자발표 2020.07.03

총 12명  
제작, 연출, 촬영 전공별 각 4명 선발



### 휴교

코로나19로 인한 강의 중단  
2020.08.24 ~ 2020.09.17

### 현장견학 2020.09.12, 13, 19

촬영현장 견학실습 장편 <숨어드는산>

### 팀 선정 2020.10.06

각 전공 1명씩 총 4개팀 구성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시작

### 졸업작품 촬영 2020.12.03~15

<배웅> 2020.12.03~05 <고백할거야> 2020.12.06~08  
<현주의 집> 2020.12.09~10 <장학생> 2020.12.12~14

### 졸업식 및 기술시사 2020.12.23

방역지침 준수 하에 축소하여 진행  
수료율 100%

### 후반작업 2021.01.19~

색보정 및 사운드믹싱 진행

## CURRICULUM

	영화이론	영화제작	영화연출	영화촬영
1주	주요 영화사 흐름	영화 프로듀싱 이해와 실제	영화적 시선 시네마틱 센스 I	화면 구성과 시각언어로서 프레임
2주	고전영화 리뷰 I 웨스턴	영화제작개론 영화제작 프로세스	영화적 시선 시네마틱 센스 II	색과 빛, 노출과 조명
3주	고전영화 리뷰 II 멜로드라마	영화제작가이드 I 제작단계별 문서자료 리뷰	영화언어의 이해 I	콘티뉴이티와 렌즈
4주	장르영화 리뷰 I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 제작실습 I 제작단계별 문서작성	영화언어의 이해 II	촬영 실습과 크리틱 I
중간과제 및 평가				
5주	장르영화 리뷰 II 느와르	영화 제작실습 II 제작 기획안 발표 및 토의	편집과 사운드 I	촬영 실습과 크리틱 II
6주	독립영화 리뷰 I 한국 I	영화 제작가이드 II 제작 예산서 분석 및 관리	편집과 사운드 II	촬영 실습과 크리틱 III
7주	독립영화 리뷰 II 한국 II	영화 제작실습 III 제작 예산안 편성 및 적용	시놉시스 피칭과 크리틱	촬영 실습과 크리틱 IV
8주	독립영화 리뷰 III 일본	영화 제작 매뉴얼 I 프리프로덕션 체크리스트	시나리오 작법 I	촬영 실습과 크리틱 V
9주	독립영화 리뷰 IV 미국	영화 제작 매뉴얼 II 프로덕션 체크리스트	시나리오 작법 II	촬영 실습과 크리틱 VI
10주	독립영화 리뷰 V 한국독립영화 로컬영화	영화 제작 매뉴얼 III 포스트프로덕션 체크리스트	최종 시나리오 평가	촬영 실습과 크리틱 VII
최종 팀 선정				
11주	<b>심화과정 단편영화 제작워크숍</b>	프리 프로덕션 + 팀별멘토링 I		
12주		프리 프로덕션 + 팀별멘토링 II		
13주		프리 프로덕션 + 팀별멘토링 III		
14주				
15주		프로덕션 + 팀별멘토링		
16주				
17주		포스트 프로덕션 + 팀별멘토링 I		
18주		포스트 프로덕션 + 팀별멘토링 II		
19주				
20주		완성작 내부시사 및 평가		

※ 전공에 상관없이 수강생 전원은 모든 수업에 참여함  
※ 심화과정 제작워크숍 과정 시 전공에 따른 역할을 맡아 참여함

## INSTRUCTORS



영화이론 책임강사  
박인호 평론가

부산영화평론가협회 회원  
인디크리틱 편집장  
다수 대학 및  
영화의 전당 영화강의



영화제작 책임강사  
김태훈 프로듀서

호텔 레이크 2020  
봉오동 전투 2019  
굿바이 쌤머 2019  
최악의 하루 2017  
슈퍼스타 2012  
구티유발자들 2006  
프로듀서



영화연출 책임강사  
백승빈 감독

나와 봄날의 약속 2019  
무서운 이야기 3: 화성에  
서 온 소녀 2016  
출중한 여자 2014  
장례식의 멤버 2008  
프랑스 중위의 여자 2007  
각본/연출



영화촬영 책임강사  
최창한 감독

물속에서 숨 쉬는 법 2017  
맥북이면 다 되지요 2017  
은하비디오 2015  
촬영  
내가 사는 세상 2019  
파도를 걷는 소년 2019  
숨어드는 산 2020  
각본/연출

## STAFF



코디네이터  
박수진



현장담임  
현승휘

### 강의사진 설명

- 위로부터 입학식 영화이론강의의 네트워킹데이 연출조별과제 촬영실습 현장실습 촬영조명실습
- 위로부터 영화연출강의의 연출온라인강의의 네트워킹데이-사례발표 연출조별실습 촬영실습 현장실습 모의피칭
- 위로부터 영화제작강의의 이론온라인강의의 조별실습-A팀 조별실습-B팀 제작계획발표 팀별멘토링 시나리오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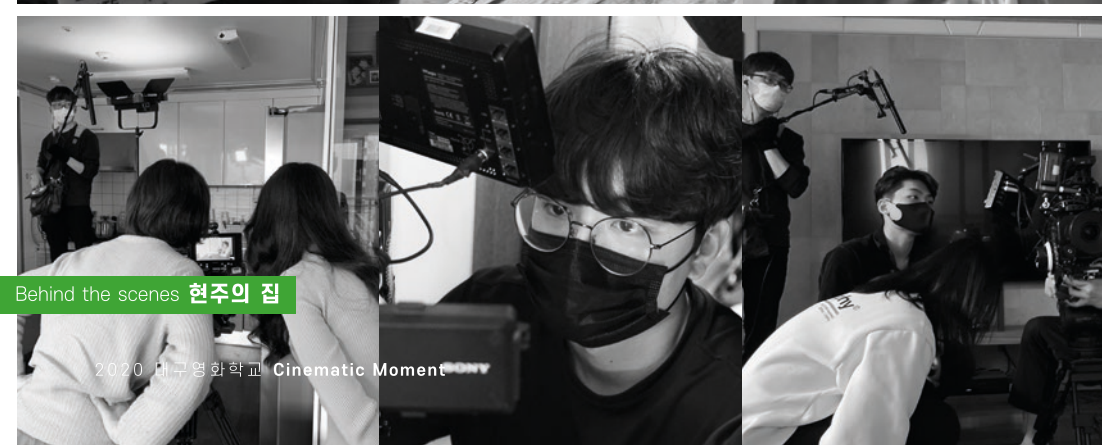




Behind the scenes 배웅

Behind the scenes 고백할거야





Behind the scenes 현주의 집

Behind the scenes 장학생





## 배웅 The Farewell

감독·각본·편집 김현진 프로듀서 손현교 촬영 권민령 조연출 장주선 스크립터 이효미  
동시녹음 김만준 미술 김재은 촬영팀 정수연 장현빈 제작팀 류승원 디 컬러플러스 믹싱  
최지영 출연 오은재 김송은 김진희 제작연도 2021년 상영시간 19분

### 시놉시스

준영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며 스텝으로 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걸도 뜸해진 게스트 하우스. 함께 지내며 일하던 친구 서인이 말도 없이 사라지고, 준영은 서인을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에게서 서인의 부친상 얘기를 전해 듣는다.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졌던 서인이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다. 이미 일은 그만뒀고 짐을 챙겨 내일 떠난다 말하는 서인. 둘은 그렇게 함께 하는 마지막 하루를 보낸다.

### 연출의도

어그러진 관계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니며, 각자 생각하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헤어짐 이후에 느끼는 상실감이란 떠나는 이와 남는 이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일 것이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으로부터 멀어졌다. 이 침체된 분위기를 개인의 상실감과 결부시켜 나타내고 싶었다.







# 고백할거야 Gonna Tell You

감독·각본·편집 김선빈<sup>o</sup> 프로듀서 김인혜 촬영 김도완 조연출 김태오 손현교 스크립터 박재현 동시녹음 박철형 촬영팀 정수연 권민령 장현빈 제작팀 방혜진 이호미 DI 컬러플러스 믹싱 최지영 출연 김이슬 김선빈<sup>o</sup> 강소령 제작연도 2021년 상영시간 14분

## 시놉시스

중학생 '성지원'은 같은 학교, 같은 이름을 가진 '한지원'에게 학교에서 공개 고백을 받는다. '한지원'은 내일 전학을 가니 지금 대답해 달라 하고, '성지원'은 사람들 시선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얼떨결에 '성지원'은 '한지원'이 떠나기 전 '한지원'의 집으로 직접 대답을 하러 가겠다 약속하게 되고, 다음날 '성지원'은 약속대로 대답을 하기 위해 '한지원'의 집을 찾아간다.

## 연출의도

처음 초고를 썼을 때는 우여곡절 끝에 고백을 받아주러 가는 아이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시나리오를 봤을 때 문득 갖은 고난을 겪으며 고백을 거절하러 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온전히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지원'이 자신만의 대답을 하러 가는 과정을 통해 주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NO'라는 대답은 대다수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성지원'처럼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속마음을 뽐어낸 진짜 고백의 경험을 통해 자기다움이 뭔지 알 수 있기를 바란다. '성지원'의 용기에 힘입어 누구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한다.







# 현주의 집 At Home

감독·각본·편집 이다훈 프로듀서 이효미 촬영 장현빈 조연출 김선빈 스크립터 김현진  
동시녹음 이명형 분장 손현교 촬영팀 권민령 정수연 김도완 제작팀 손현교 김태오 김  
인혜 DI 컬러플러스 믹싱 최지영 출연 정윤경 제작연도 2021년 상영시간 16분 41초

## 시놉시스

현주는 일상의 대부분을 집에서 홀로 보내는 암환자이다. 아들과 남편이 밖에 나간 오전의 집 안, 어김없이 찾아오는 심한 통증에 그녀는 거실 소파에 누워만 있다. 세탁기 소리에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일상을 시작하는 그녀.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도를 하고, 약을 먹고, 기도를 한다. 남편은 항암 부작용으로 속이 좋지 않은 현주를 생각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해 놓고, 과거 병실 동료의 부고 소식도 들려온다. 밀려드는 고통과 회의는 그녀 홀로 견디기에 버겁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그녀는 마치 이동하는 빛과 그림자처럼, 저물어 가는 해처럼, 말라가는 빨래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담담히 보내고, 아들과 남편을 기다리며 소파에서 눈을 감는다.

## 연출의도

항암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물건 하나 들기 힘든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자주 들려오는 병실 동료들의 부고 소식들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둔 불안감, 허탈감도 클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력함이다. 물리적인 한계에 놓인 이들은 상황을 타개하는 행동을 하기 힘들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무언가 극적인 사건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정된 공간에서, 그저 홀로 고통을 견디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반복된 일상을 묵묵히 헤쳐 나갈 뿐이다.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다. 해가 뜨고 지듯, 젖은 빨래가 마르듯, 어떠한 해답도 주지 않는 시간에 몸을 맡기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 장학생 Scho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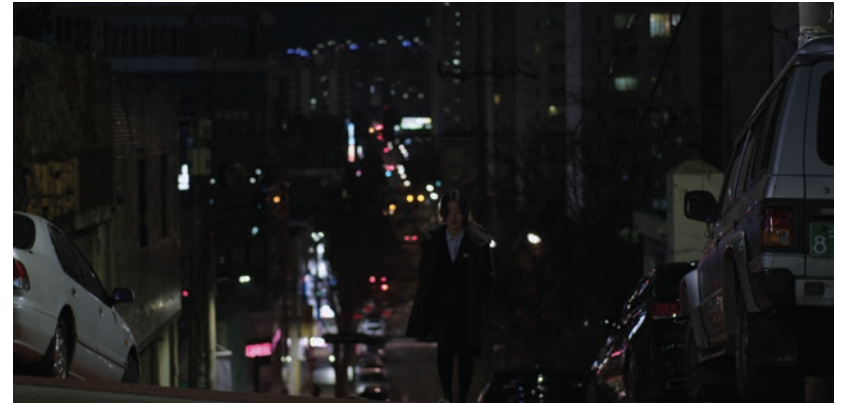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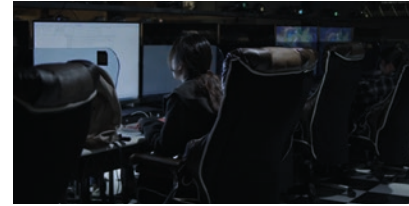
감독·각본·편집 장주선 프로듀서 김태오 촬영 정수연 조연출 손현교 스크립터 박수진  
동시녹음 권민령 미술/의상 성광제 촬영팀 김도완 장현빈 연출팀 홍주연 연출지원 김  
현진 제작팀 이효미 DI 컬러플러스 믹싱 최지영 출연 조예주 박희은 권민희 김령아 제  
작연도 2021년 상영시간 27분 51초

### 시놉시스

고등학생 희원은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기 위  
해 자신의 처지를 증명해줄 서류를 발급받아  
야 하지만 좀처럼 쉽지 않다.

### 연출의도

어떤 성장은 뜻하지 않은 형태로 찾아온다. 가  
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는 때로 너무 가혹  
하고, 차갑기만 하다.







xkcm123@naver.com

## 촬영 전공 권민령

2020년의 봄, 대학을 갓 졸업한 나는 취업한다는 핑계로 놀았다. 면접도 몇 번 보러 갔는데 불합격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간간이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를 하며 먹고 살았다.

여름, 대구영화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공고를 보는데 촬영전공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아는 촬영 감독들의 대부분은 키가 크고 우락부락하고 힘이 센 사람들인데 덩치 작고 귀여운 내가 촬영감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취직도 못 해서 놀고 있는 나의 공백을 메울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어쩌다 보니, 대구영화학교에 촬영 전공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졸업영화로 김현진 감독의 <배웅>을 촬영하게 되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포기하는 일이다.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두고 싶었지만, 우리에게겐 정해진 예산과 시간이었다. 할 수 있다는 말보다 할 수 없다는 말이 더 나오던 때였고 마냥 앉아서 판단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영화의 주 로케이션인 게스트하우스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세트를 만들지 않는 이상 감독이 생각한 장소에 부합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시나리오는 구해놓은 장소에 맞게 이리저리 고쳐졌다. 장소가 해결

되니 이번엔 촬영 회차가 문제였다. 예산에 맞춰 찍으려면 시나리오 일부분을 들어내야 했다. 그렇게 메스질 된 시나리오를 보고 있지 아니 처음 의도와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영화를 만들어야 하니! 나와 감독은 매일 밤 술을 먹으며 서로의 불안함을 달랬고, 그렇게 지갑이 가벼워져 갈 때쯤 <배웅> 촬영에 들어갔다.

모름지기 촬영 감독이라는 직책은 카메라를 어디에다 놓을 것인지 피사체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아니 그 전에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일부터 시작한다. 혼자 하기엔 힘에 부치니 친구들과 함께해야 한다. 영화학교 동기생으로 촬영부가 되어준 정수연, 장현빈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카메라 위치를 잡고 나면 진퇴양난으로 빠지는데 잡아 놓은 앵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땐 감독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앵글을 수정했다.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시간과 에너지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럴 때마다 정말 울고 싶어서 촬영 중간에 몰래 울었는데, 감독은 울먹이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아니라고 잡아떼긴 했는데, 영화가 뭐라고 사람을 울게 만드는지 몰라.

어쨌든 <배웅>에는 나의 간절하고 서툴렀던 마음이 담겨 있다. @





ehdhks0817@naver.com

## 촬영 전공 김도완

영화인으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 워크숍 수강도 하고 영화를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대구에 내려와서는 정처 없이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내가 하는 공부가 맞는 것인지, 쓰고 있는 글이 어떤지, 내가 가진 나침반의 바늘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나 한건지... 그렇게 혼자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영화학교 모집 요강을 보게 되었다. 주변에 영화와 관련된 사람이 없었던 나에게 영화학교 모집 요강은 한 줄기 빛 같았다. 그러면서도 문득 마음 속에 질문 하나가 맴돌았다. *'나는 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걸까?'* 뭔가 구체적인 이유를 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동력으로 작동하리라 생각했다. 어쩌면 영화학교가 끝나면 답을 알 것만 같았다. 영화학교가 개강하고 나서의 내 일상은 영화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수업은 월화수목이었지만, 수업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전공별로 과제가 주어지기도 했고, 팀을 이루어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무지했던 나는 매주 들어오는 정보들을 입력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영화 촬영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현장에서 촬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이 커지기 시작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불안함은 동기들과 함께 카메라를 만져보고, 조명을 설치하고 연습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동기

들과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고, 영화의 핵심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 과정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본격적인 졸업작품 준비 중에 영화는 '협력의 예술'이라는 것이 더욱 실감 났다. 첫 모임부터 각 파트별로 서로 조화를 이루자고 서로 다짐했다. 물론 모든 것이 원활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난관과 만난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영화를 만들자!'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서로를 이해하려 더 노력했고, 긍정적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려 애썼다. 치열한 준비 끝에 맞이한 촬영현장은 함께 상상 속에서 구현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재현되는, 특별하고 놀라운 순간들로 가득했다. 특히 계성중에서의 촬영은 찍으면서도 놀랐다. *'재미있다! 이래서 영화를 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에 마스크 아래로 실실 웃곤 했다. 예전에는 열정을 쏟았던 일이 끝나면 꼭 깊은 공허함이 찾아오곤 했다. 그런데 영화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앞으로 영화라는 높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걸어가야 않아도 된다. 11명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끝으로, 부족했던 나를 이해해 주고, 배려해 준 동기들과 강사님들을 비롯한 대구영상미디어 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





sg391354@gmail.com

## 연출전공 김선빈

첫날, 우리는 동글게 앉아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첫 만남에 튀고 싶어서 셋노란색 카라티를 입고 있었다. 11명의 얼굴들을 빠르게 곁눈질했는데 다들 마스크로 얼굴을 퐁퐁 싸매고 있어서 파악이 불가했다. 각자 왜 영화를 시작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나는 “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뒤 프리를 거치면서 그 거만한 입을 틀어막고 싶어졌다. 10주 간 우리는 영화이론, 연출, 촬영, 제작 수업을 같이 들었다. 결국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편해졌다. 주로 영화 얘기만 했다. 그게 좀 구질구질하게 느껴져서 다른 얘기를 해보는 게 어더냐고 제안해봤는데 5분 뒤에 또 영화얘기를 하고 있었다. 감명 깊게 본 영화를 말하고 앞으로 어떤 영화를 찍고 싶은지 얘기했다. 좋아하는 뭔가를 이제 막 시작해보려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나 그동안 이런 대화할 사람 정말 필요했는데 다들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내 눈앞에 나타난 거지 싶었다.

10주차 무렵 제작피칭, 연출피칭을 거치고 프리프로덕션이 시작됐다. 연출전공인 나는 그 무렵부터 시나리오가 촬영고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의 수정을 거쳤다. 매주 수정된 시나리오를 제출할 때쯤이면 연출 단톡방(여기는 “.....”와 “ㅠㅠㅠ”가 대부분이다.)에서 연출 전공들끼리 시나리오 수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공유하고 서로의 시나리오를 응원했다.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연출, 촬영,

제작에 있어서 감독님, PD님에게 소중한 멘토링을 받으며 우리는 졸업영화를 준비해갔다. 그 사이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장소섭외 문제, 배우 캐스팅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끝내 우리는 영화를 찍게 되었다.

11월 말의 한파로 몸에 덕지덕지 핫팩을 붙이고 일했다. 특히 우리 팀의 영화는 아외씬이 많은 시나리오여서 (죄송해요.) 다들 고생을 많이 했다. 당연하게도 현장은 일할표 시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딜레이에 딜레이가 더해지자 내가 이 씬에서 정말로 챙겨야 할 부분이 뭔지 정도만 생각하고 (사실 그럴 정신없을 때도 있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혼이 나갈 만큼 정신이 없다가도 문득 벽찬 순간들이 존재했다. 두 달 남짓한 시간동안 촬영감독과 매일같이 만나서 구상했던 콘티대로 모니터 화면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마법 같다고 느꼈다. 촬영감독과 나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와, 우리가 결국 이걸 찍네.”

모든 팀의 촬영이 끝나고 지옥의 편집주기가 다가왔다. 앞으로 편집도 더 보완해야 하고 후반색 보정, 믹싱의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기술시사본을 제출하고 나니 비로소 대구영화학교 2기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다.

졸업식 날, 우리는 스크린을 보고 앉아 우리의 영화를 봤다. 여전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볼 수 없었지만 이전 그들이 마스크 뒤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있었다. @





lagrima30@naver.com

## 제작전공 김인혜

김밥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촬영 계획을 단 일주일 연기한 것인데 11월과 12월의 기운은 달랐다. 차에서 잠시 꺼내놓은 김밥이 스태프들에게 건네줄 때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그 추위에 도완 촬영감독은 런닝도, 심지어 외투도 안 입고 달랑 얇은 면티 차림이다.

문득 “잠도 못자고, 잘 먹히지도 않고, 고통스러운데, 현장이 너무 좋아요”했던, 한 감독님의 눈빛이 떠올랐다. 영화제 뒷풀이 자리였나, 정신이 잠시 다른 곳을 탐험하는 듯 반짝 빛이 머물렀다가 그는. 그와는 다르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놀란 일은 첫날 촬영장에서의 몰입도였다. 정말인지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잠시도 없었다. (초보라서 더욱 여유가 없었다.)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고, 촬영 장비를 정리할 때서야 ‘앗’ 하고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아마도 그 찰나였던 것 같다. 현장이 좋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고, 누군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레임 바깥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늘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많은 걸음과 수고를. 제작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통제되지 않는 순간들,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문제들에도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의 선의를 경험했고, 동기들

에게는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애정과 맹목적인 만큼 매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배웠다.

자전거 추격 신을 준비하느라 만춘동을 자주 드나들었다. 외부인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듯 고요하고 차분한 주택가여서 우리가 지나면 마당을 지키던 개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짖었다. 동네 곳곳에 주렁주렁 감을 단 감나무들이 가지를 늘어뜨렸고, 화단을 가꾸거나 마당 어귀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는 사람들도 풍경처럼 있었다. 발 디딜 틈 없이 마당 가득 국화가 핀 집. 그 곳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다. 빼곡히 늘어진 새장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새들이 지저귀는 집. 촬영감독님은 사용해보지 않은 한 손 짐벌을 익혔고, 나는 주로 도둑 대역으로 앞서 뛰었다. 액션 신호가 오기 전 바람에 날려오는 국화향기를 맡으며 새소리를 듣다가 뛰고, 다시 그 집 앞으로 돌아와 또 뛰었다. 이 영화를 생각하면 아마 언제라도 나는 그 집 앞으로 돌아가 있을 것 같다.

아직 현장을 즐기기에는 부족해 혹시 놓친 게 있을까 걱정하느라 긴장의 연속이다. 하지만 차가운 김밥으로 시작했던 이번 영화작업과 과정을 만들어 준 영화학교가, 언젠가 현장이 너무 좋다고 말하게 되는 나의 출발점이 될 것 같다. ㉠



PRODUCER

## 제작전공 김태오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날, 대구영화학교 면접장에 들어가며 외쳤던 한 마디. 아직 내 기억 속에 너무도 생생히 살아있다. 그때의 긴장감, 설렘, 간절함은 아직도 여전하다.

대구영화학교를 지원하던 당시의 나의 심정은 ‘하고 싶음’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절박함’이었던 것 같다. 영화가 너무 하고 싶어 나 혼자서 무언가를 찍고, 만들고, 공부해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그러다 대구영화학교를 알게 되었고, 이곳이 ‘무언가’를 채워줄 유일한 선택으로 보였다. 그 즉시 바로 지원서를 준비했던 것 같다. 당시에 지원서를 어떻게 써야 좋을지 머릿속 고민이 가득했지만, 나의 심장만큼은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가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 마냥 설렘이었다. 이 설렘은 168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설렘이었던 순간을 꼽아보라면, 당연히 무더웠던 7월 8일의 여름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었던 그 날. 어색한 공기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기대 반, 낯설 반을 가지고 쭈뼛쭈뼛 눈치를 봤던 것 같다. 그럼에도 11명의 친구를 보며, 마음속으로 반갑다고 혼자서 얼마나 인사를 했는지 모른다. 마치 동경하던 스타를 만난 팬이 된 것만 같았다. 내 눈엔 다들 실베스터 스탤론, 조앤 롤링, 타란티노, 로베르

토 베니니, 그리고 하정우였다. 스탤론들과 앞으로 함께 교육을 받고 영화를 찍는다는 생각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다들 정말 멋있어 보였고, 나도 그렇게 될 거라 굳게 마음을 먹었다.

정신없이 대구영화학교를 하다 보니 어느새 여름과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을 쌓았다. 제이커피, 달성공원, 오오극장, 코로나, 화상회의, 할머니덕, 쭈꾸미집, 다훈이집, 현빈이집... 아, 추억들을 다 열거하자면 1,500자를 우습게 넘길 것 같아 적당히 마무리해야겠다. 이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스탤론들을 만나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이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행복하자~!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센터·독협 선생님들과 강사님들, 대구영화계 선생님들 덕분에 행복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이 행복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소중한 힘이 될 것만 같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운을 주는 박카스처럼.

후, 이제 겨우 한 계단 올라왔다. 계속해서 도전하며 영화와 함께하고 싶다. 설렘, 긴장감,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 7월의 첫날, 센터 문을 열며 “안녕하십니까!!”라고 외쳤던 이때의 감정을 잊지 않고. @

lagrima30@naver.com





youngdumb427@gmail.com

## 연출전공 김현진

2020년은 참 특별한 해였다. 꿈으로만 그리던 영화 연출을 하고, 쉬어갈 즈음에 영화 학교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영화를 찍고서 좀 지쳐있을 때라 할까 말까 살짝 고민했지만, 만약 지원하지 않으면 분명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면접 날, 옆에 강의실에서 편집을 하며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면접을 보러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가는 모습을 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던 기억도 난다. 면접 보고 나올 때 합격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겠다고 다짐하며 심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배웅'이라는 제목으로 단편을 만들었다. 감정을 노래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덜컥 내뱉어놓고서, 정작 시놉시스부터 영화화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의문이 들고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잘 만들었나를 떠나서 내겐 참 특별하게 남아있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편집도 덜 끝났다. 영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단편영화 프리작업에서 각 파트별로 강사님들께 피드백 받으면서 여태껏 영화 작업 자체를 배우면서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기에 많이 체화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니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 후회도 남는다. 프리 단계에서 팀원들과 만나서 회의하고 로케이션을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잘하

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영화 학교에서 찍을만한 작지만 밀도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장소 이동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장소를 찾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우리 팀원 민령이랑 현교랑 만나서 대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란 게스트하우스는 다 돌아다녀 본 것 같다. 장담컨대 가지 않더라도 전화는 다 돌려본 것 같다. 그렇게 우린 인간 아놀자가 되어갔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그 시간들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웃음이 난다. 그 당시엔 분명 심각할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대구 영화학교를 끝으로 2020년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생애 가장 특별했던, 영화로운 한 해였다. 이렇게 끝난 게 참 아쉽지만 또 다른 시작을 그리며 영화 학교에서 만난 동기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영화 작업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싶다.

영화 작업은 그동안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과 그냥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기억들까지 상기하고 또 소중한 간직할 수 있게 만든다. 평범한 내가 특별한 영화를 만들려는 과정 자체에 희열이 느껴지기도 하고. 앞으로도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다. 변치 않는 변치 않을 이 마음 꼭 키워나가며 영화를 더 알아가고 싶다. 나는 좋은 영화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 영화를 꿈꾸며. @





sonhg98@naver.com

## 제작 전공 손현교

영화를 만드는 일에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와 연출만 있다고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는 첫 작품을 만들 때부터 연출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 또한 연출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 영화를 만드는 일에서 연출의 시각으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연출로 참여했던 작품에서도 조연출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연출이라는 좁은 시선으로만 보고 있었죠. 영화학교를 다니며 영화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출에 떨어지고 제작에 붙은 것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학교에서 배우고 여러 작품들에 스태프로 참여하고 나니까 제가 틀렸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던 시선은 너무 좁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번 영화의 제작을 맡으면서 영화의 연출적인 디테일인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힘을 조금은 기른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학교를 하면서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저는 재학 중인 학교의 시험기간과 겹치는 날도 많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화학교 동기들, 우리 팀원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편의를 봐줘서 둘 다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배웅>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준 영화학교 동기들, 외부 스태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학교를 다니는 동안 너무 행복한 기억들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늘 제 생일은 방학이고

휴가철이어서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했는데 영화학교를 다니던 생일에는 서프라이즈하게 보내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다훈이 집에 놀러 간 것도 너무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래도 가장 행복한 기억을 꼽으려면 당연히 촬영 현장이었던 거 같습니다. 정신이 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팀의 촬영장에 갔었는데 각각의 팀마다 저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촬영이 끝난 지금도 제가 더 잘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부족한 저를 잘 이해해주고 이끌어준 우리 팀원, 민형언니, 현진언니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도 어린 동생이 가끔은 짓궂은 장난을 쳐도 너무 잘 받아주고 배려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영화학교 동기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장난을 쳐도 다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동기들 너무 착한 거 같아요. 우리 영화학교 졸업해도 가끔씩 만나서 대화하고 놀아요. 또 스태프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좋은 수업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박인호 평론가님, 최창환 감독님, 백승빈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게으름 때문에 과제 제출이 자꾸 늦어졌지만 이해해주시고 더 좋은 방법을 늘 알려주신 김태훈 피디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졸업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덕분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hoon110202@naver.com

## 연출 전공 이 다 훈

막연히 군입대만을 기다리고 있던 나였다. 남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영화에 관심 있는 친구의 소개로 영화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영화 현장에 가본 적도, 영화작업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고, 이력이라고 혼자 방에서 *(리뷰라고 하기도 민망하)* 영화리뷰 유튜브를 하던 것이 전부였다. 그러한 농에게 감사하게도 합격전화가 왔다. 면접 때나, 자기소개서에는 그래도 준비된 사람처럼 애써 포장을 하다시피 했지만 사실 이처럼 우연한 계기로, 지원서 접수 마감 일주일 전에 영화학교의 존재를 알았다. 그나마 출근 영화를 하고 싶다며 노트에 적어뒀던 로그라인으로 급조한 시놉시스를 내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쓰던 시나리오의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영화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시나리오를 바꾸었다. 아 니나 다를까 그전 것 보다는 시간이 덜 들어간 시나리오가 또 부족해 보여 또 바꾸고, 바꾸면서 계속되는 수정을 거쳤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서 배우면서 하다 보면 영화가 완성성이 되겠지. 그때는 몰랐다. 내가 구상하던 것이 1000이라면, 포스트에서 70, 프리에서 50, 현장에서 30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다보면 1000이 1300이, 1500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괴리도 컸던 것일까. 나는 구조물을 최소한으로, 최대한 잘 철거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무언가 새로운 구조물을 더 세우려 하고 있었다.

영화경험 뿐 아니라 인생경험도 부족했던 나는, 이렇게 팀원들을 괴롭혔다. 매번 시나리오를 바꾸며 매번 고집을 부리고, 사소한 것 하나 하나 미성숙하고 매정하지 않았다. 어떤 책을 읽건, 어떤 영화를 보건, 어떤 음악을 듣건 주위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나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작품에 관해서 언제나 혼자서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다.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팀작업을 한다는 것은 내게 익숙하지 못한 일이었다. 사회경험이 별로 없던 미숙한 나와 함께 고민을 해준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언제나 감사하다. 언제나 지금 죽더라도 여한 없는 한해였기를 빌지만 역시나 올해도 여한은 있겠다.

아쉽다. 아쉽고, 아쉽고, 또 아쉽다. 슬퍼진다. 항상 지금의 순간에 만족 못 한다는 것은. 항상 미완인 것이 싫었다. 치기어림과, 완속하지 못한 것, 무수한 시행착오라는 것들이 싫었다. 나 자신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때문에 살아오면서 가지는 막연한 계획들, 음악을 하겠다. 시를 내겠다. 대학원을 가겠다... 등등의 여러 시도들은, 제대로 된 시작도 전에 나는 쥐던 손이 힘이 빠져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어떻게든 붙잡고 싶고, 붙잡을 힘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어쨌거나 나는 계속 더 버티고 싶구나. 아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구나. 다음이 된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분명히. ⑩





smile1hm@naver.com

## 제작전공 이효미

2020년하면 떠오르는 것, 나는 코로나와 영화학교라고 대답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오래도록 세운 계획이 다 무산되어 코로나가 너무 미웠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영화학교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영화에 대한 꿈이 이뤄진 곳.

2020년 6월, 여차피 코로나가 터져 아무것도 못 할 거면 영화 경험을 쌓자며 상경해 친구와 외국인들과 셰어하우스에서 즐기겠다며 방을 찾았다. 알 곳은 타이밍으로 계획은 무산되었고, 친구가 대구에도 영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찾아준 것이 <대구 영화학교 2기> 모집공고였다. 나에게 딱 맞는 곳 같다는 생각과, 서울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사이를 갈팡질팡하다가 마감 1분 남기고 지원서를 넣었다.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면접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영, 됐다고?”

로비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울렁증이 심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긴장을 풀려고 초면인 수진쌤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 여쭙다가 긴장을 배로 한 채 면접장에 들어갔다. 내 시나리오를 본 면접관이 광고 같다고 하셨다. “아 네...” 하면 될 걸, 긴장한 탓에 “오미야! 아, 네 그렇죠”라고 남일처럼 공감해버렸다. 최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를 묻는 질문에는 ‘치정은 언제나 최고지’하며 ‘부부의 세계’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서울에 갈 생각입니다!” 했다. 이곳은 대구에서 일할 신인 영화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듣고서 짹짹 대답했다.

“아... 그럼 여기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짜 탈락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나가자마자 정신도 채 차리기 전에 대기하던 면접자에게 면접 오셨냐고 쿨한 척 말도 걸고, 떨떠름해 하는 그 사람에게 면접 잘 보시라고 화이팅도 외치는 주접을 떨었다.

가열차게 망해버린 면접의 후유증이 아물고 있을 때 즈음 연락이 왔다. 내가 붙었다.

“영? 제가요? 제예요?”

“네, 효미씨 텐션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 이거였어. 내 텐션을 끝까지 끌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내 영화인생에 시작점을 찍었다. 이론적인 것부터,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마인드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배우며 천천히 쌓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학교 중 가장 크게 얻은 것은 항상 배워 올 것이 많았던 우리 동료들. 내가 쿨한 척 오지 않을 때면 면접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던 사람도 지금은 나의 소중한 동료이다. 영화학교는 6개월 동안의 단일학기였기에 매 순간 집중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내 몫을 다 해야 하니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6개월이 흘러 마지막이 다가왔음이 실감 나 너무 아쉽다. 그렇지만 앞으로 함께 할 동료들을 얻었고, 나 자신도 6개월간 성장했음을 느낀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텐션의 초심을 잃지 않으리라 다짐해본다. 내 옆의 소중한 동료들, 앞으로 새로이 만날 동료들 그리고 많은 조언을 주셨던 멘토 분들께도 자랑스러운 동료가 되고 싶고, 그런 동료가 되어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

2기짱♥④





dns02207@naver.com

## 연출전공 장주선

어떤 새벽, 영화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순간을 잊지 못해 꽤 오래 영화 주변을 맴돌았다. 영화를 만들고 싶는데 물어볼 곳이 없고, 함께 할 사람도 없고. 여차저차 한 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었지만, 완성하고 나서 든 생각은 '더 배우고 싶다'였다. 이 모든 고민을 끌어안고 있을 때, 대구영화학교를 만났다.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영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은 꽤 특별했다. 한동안은 동기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니. 너무 근사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이었는데, 금요일이 되면 아쉬웠다. 얼른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으면 했다. 그만큼 내게 영화학교는 오랜만에 되찾은 즐거움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시놉시스 피칭을 하던 날이다. 전날까지 준비한 발표 자료와 시놉시스를 메일로 보낼 때 굉장히 떨렸다. 앞에 나가서 발표하던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내가 쓴 이야기에 대해 강사님과 동기들이 정성스러운 의견을 해주었다.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다. 누군가 내가 쓴 글을 꼼꼼히 읽고, 여러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나에게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정

해나갈 수 있었고, 마침내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프리프로덕션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알아갈수록 더 어렵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저 '영화처럼' 만들고자 했는데, 배우면 배우수록 표현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 '영화처럼'이 아닌,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싸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촬영을 마쳤다. 마지막 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을 기억하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후에도 영화를 꼭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입학식 때 국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때 나는 떨려서 횡설수설했지만, 이후에도 그 질문에 대해 종종 생각했다. 용기도 없고, 걱정이 앞서 잘 나서지 못하는 내가 능동적으로 뛰어올 수 있는 것. 어느 겨울, 이불 속에서 두근거림을 그러안고 영화를 보며 눈물을 글썽했던 밤. 팀원들과 함께 골몰했던 수많은 시간을 지나 영화가 만들어지던 날. 이 모든 것이 내가 영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였다. 올해가 지나면서 여기에 하나의 이유가 더해졌다. 이제는 길을 물어볼 선생님들과 함께 할 동기들이 11명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좀 더 영화를 꿈꿔 봐도 되지 않을까. @





paulmcdonald1@naver.com

## 촬영전공 장현빈

2020년 대구영화학교 지원서를 준비할 무렵,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란스러웠지만 그와 반대로 나의 마음은 무척 안정적이었다. 대학교 새내기 시절의 부진했던 전공 성적은 군 전역을 이후로 만족스러울 만큼 만회되었고, 부진했던 성적에도 국가장학금이 전액 지원되었던 우리 집안의 경제사정도 아버지 사업의 진전으로 많이 회복되어 등록금 전액을 모두 수납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동안 제쳐뒀던 영화인의 꿈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생겨난 잡념들이 나의 전공 책 속 숫자들을 징그럽게 만들었다. *(항상 징그럽긴 했으나, 보다 더)* 내 꿈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왔던 징그러운 공부들은 오히려 나에게 보탬이 되었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보험금은 낼 만큼 냈다."*

나는 고민 없이 영화학교 지원서와 대학교 휴학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나는 나 자신이 어버버하며 허둥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영화학교를 하면서 어리숙한 나 자신을 자주 마주했다. 내가 살면서 봐온 영화와 책들은 다른 동기생들에 비해 너무 적었고, 남들보다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의견에 자신감이 없어 말끝을 흐리기 일쑤였고, 수업에도 소극적이었다. 또한 나는 촬영전공으로서 난생처음 만져보는 팔뚝만한 카메라와 장

비들 앞에서 겁먹고 허둥대기 바빴다. 하지만 영화학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경험 많고 친절한 강사님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고, 조금씩 경험과 지식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다. 팀이 구성되고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고, 애초에 계획했어야 할 부분들도 드러나면서 우리들을 당황케 했다. 이 외에도 나는 수많은 '어버버'를 저지르면서 영화학교를 마치게 되었다. 민망하고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처음 부딪혀 보는 현장을 영화학교와 함께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음 현장에서는 좀 더 능숙하게 *(물론 어버버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 12월 오오극장에서 상영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다. 내가 감사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직원분들, 대구영화학교 강사님들, 스태프분들과 우리 동기들까지. 내 첫 걸음을 함께해 주고, 만족스러운 나의 24살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끝으로 대구영화학교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혹시 영화학교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없이 지원하길 권유하고 싶다. @





jsyeh13@naver.com

## 촬영 전공 정수연

*'사람은 항상 같은 출력을 낼 수 없다'*

나는 올해 이 문장으로 내 영화학교 후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020년은 코로나를 빼곤 얘기를 할 수 없다.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는 봐주지 않고 작은 영화 연출 지망생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6월쯤 모집을 시작한 대구 영화학교는 나에게 한 줄기의 빛이었다. 나는 감사하게도 촬영 전공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영상 작업들과 달리 영화 촬영, 조명 장비를 다루는 것은 마치 큰 괴물 덩어리들과 싸우는 것 같았다. 엄청 크고 무거웠다. 나는 첫 번째 촬영 과제를 해왔을 때 최창환 감독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다. *'현장에서의 모든 기술적 책임도 촬영 감독에게 있다.'*

장비는 결국 계속 만져보고 숙련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또 한 번 감사하게도 나는 장비들을 다루볼 기회들이 있었다. 대구 영화학교 1기였던 선배 두 명의 현장에서 촬영 보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촬영 장비를 더 잘 관리하거나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촬영 현장은 영화처럼 낭만적이지 않다. 사실 아름답지 않은 순간이 너무 많다. 연출 수업을 하시던 백승빈 감독님은 촬영 현장을 '스트레스 지뢰밭'이라고 비유하셨던 적이 있다. 아무리 열정 많은 영화 지망생들이 모여 영화를 만든다 한들 추운 겨울 밖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저녁쯤 집 안에서 촬영을 시작하면 다들 축 쳐지고 노곤해진다. 그러다 보면 달레이의 눈에

빠져버린다. 이럴 때면 한번도 얼굴 구기지 않았던 팀 멤버도 눈엣가시처럼 쳐다보게 된다. 더군다나 우리 팀을 도와주러 온 동기들이 조용히 소품을 정리하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으면 더욱 미안하다. 결국엔 미숙한 촬영 감독인 나 자신 때문에 달레이가 된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은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런 촉박함과 자책감에 젖어 촬영을 마무리 지으면 편집에서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같은 출력을 낼 수 없다. 나는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노력하고 노력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노력이 평소와 같음에도 이게 맞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를 되돌아보느라 번 아웃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나는 2기 동기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영화를 했던 게 다행인 것 같다. 몇 번이나 번아웃이 되었지만 그래도 동기들이 먼저 회의하고 연습하자며 이끌어 줘서 나를 멈춰 있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가속도가 붙으면 어느샌가 결승선 지점에 와 있다.

영화 현장이 아름답지도 않고 영화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 말리게 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영화를 하는 이유는 내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와 같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



작년 대구영화학교를 졸업한 1기, 잊지 않으셨죠?  
이제 지역 영화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윤진 1기 제작전공

- 장편 <레이오버 호텔> 프로듀서 ★
- 장편 <숨어드는 산> 프로듀서 ★
- 단편 <국수 한 그릇> 감독/각본 ★  
달서문화재단 시네마 프로젝트 영화부문 선정 🏆
- 단편 <에어컨을 켜라> 감독/각본 ★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공모 선정 🏆
- 단편 <엄마는 무엇을 잊었는가> 감독/각본 ★  
대구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경쟁 🏆
- 단편 <씨불린 사람들> 감독/각본 ★
- 단편 <단비의 이별> 라인프로듀서 ★
- 웹드라마 <202> 라인프로듀서 ★
- 단편 <복날> 촬영팀

김재은 1기 제작전공



- 단편 <복날> 미술감독 ★
- 단편 <사라지는 것들> 스크립터
- 단편 <나랑 아니면> 프로듀서 ★
- 장편 <디어 마이 그린 메이트> 미술팀
- 단편 <배웅> 미술감독 ★

이준현 1기 촬영전공



- 단편 <행궁> 촬영감독 ★
- 21회 대구단편영화제 공식트레일러 촬영감독 ★



박재현 1기 촬영전공

- 단편 <나랑 아니면> 감독/각본 ★  
대구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선정 🏆  
달서문화재단 시네마 프로젝트 영화부문 선정 🏆
- 단편 <늦잠> 촬영감독 ★
- 단편 <복날> 조연출 ★
- 단편 <피아의 면사> 촬영 1st
- 단편 <단비의 이별> 촬영팀
- 장편 <디어 마이 그린 메이트> 촬영 1st
- 단편 <고백할거야> 스크립터

2020년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영화현장을 누빈 1기 졸업생들의 활약상을 모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들을 계속 응원해 주세요! ★ 키스탑 🏆 제작지원 선정 🏆 영화제 수상 🏆



박찬우 1기 연출전공

- 단편 <다섯 식구> 감독/각본 ★  
전북독립영화제 특별언급 수상 🏆  
대구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경쟁 🏆  
제주홀리독립영화제 경쟁 🏆
- 단편 <국가유공자> 감독/각본 ★  
대구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선정 🏆  
대구단편영화제 피칭포럼 제작지원 선정 🏆
- 단편 <늦잠> 감독/각본 ★  
영화진흥위원회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공모 선정 🏆
- 장편 <흐르다> 조연출 ★



남가원 1기 제작전공

- 단편 <이립잔치> 감독/각본 ★  
한국영상위 지역영화제작지원사업 단편부분 선정 🏆
- 단편 <행궁> 감독/각본 ★  
달서문화재단 시네마 프로젝트 영화부문 선정 🏆
- 단편 <외숙모> 제작팀
- 단편 <복날> 연출팀
- 단편 <나랑 아니면> 제작팀
- 장편 <디어 마이 그린 메이트> 연출팀
- 21회 대구단편영화제 프로그램 팀장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단편영화제작워크숍 보조강사



장은우 1기 촬영전공

- 단편 <에어컨을 켜라> 촬영감독 ★
- 장편 <레이오버 호텔> 촬영팀
- 장편 <숨어드는 산> 라인프로듀서 ★
- 장편 <국수 한 그릇> 촬영팀



김태형 1기 촬영전공

- 단편 <복날> 촬영 1st
- 장편 <레이오버 호텔> 촬영팀
- 장편 <숨어드는 산> 인물조연출 ★
- 단편 <국수 한 그릇> 프로듀서 ★
- 단편 <에어컨을 켜라> 촬영팀
- 단편 <행궁> 촬영 1st
- 웹드라마 <대프리카 청춘이다> 동시녹음 ★
- 단편 <국가유공자> 동시녹음 ★
- 단편 <단비의 이별> 촬영 1st
- 단편 <이립잔치> 촬영팀
- 단편 <살아짐이 사라짐> 스크립터



**괜찮아. 잘될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이한철 <슈퍼스타> 가사 중

**당신에게, 꿈?**

2019년 여름, <대구영화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무더위와는 별개로 30년 전, 서울 종로 시네마테크의 문을 처음 들어서던 20대 초반의 나와 더 거슬러 올라 1년에 100여 편의 영화를 보고 다녔던 10대의 모습이 덩어리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 코로나로 가혹하리만큼 생채기가 나있는 대구에 다시 들어섰을 때, 1기 졸업생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낯선 2기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또한 잊그제 같습니다.

**‘이 나이 때, 나는 무엇을 꿈꾸었을까?’**

시간의 흐름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지금은 영화를 대하는 자세가 학생들과는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진지하고 열정 어린 모습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현재도 늘 작품을 시작하며 새롭고 설레고 배우의 자세가 되어간다고 전합니다. 학생들과 쌓아 간 대구영화학교에서의 시간 또한 저에게도 또 다른 소중한 경험과 배움이었습니다.

**김인혜, 김태오, 손현교, 이호미,  
김선빈, 김현진, 이다훈, 장주선,  
권민령, 김도완, 장현빈, 정수연.**

지금,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지칠지라도 외롭진 않아**

지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영화는 혼자만의 외로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었던 지금 이 순간을, 지치고 힘들 때 기억하며 서로의 이름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영화학교 관계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구영화학교 2기 학생분들의 졸업과 희망찬 시작을 축하드리고 응원 드립니다.

영화제작 책임강사  
김태훈 프로듀서



2기 졸업식 영상 바로가기

2020년 7월 8일 입학 2020년 12월 23일 졸업  
교육과정 20주 4편의 졸업작품  
4명의 프로듀서 4명의 촬영감독 4명의 연출감독  
그리고 12명의 동료  
**2020년 대구영화학교 신규영화전문인력 2기**



# Rethink the Cinema

CHAPTER 2 현장영화인역량강화프로그램



# Rethink the Cinema

## 지역영화인, 역량을 높인다

지역을 기반으로 영화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고단한 일이다. 현실적 불편함, 실재하는 난관과 끝없이 부딪쳐야 한다. 대구 영화학교 현장영화인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지역에서 묵묵히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 영화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2020년 과정개설에 앞서 현장 영화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장 수요가 높은 부분이 장편 시나리오 작성, 장편영화 제작노하우 등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 내 장편독립영화 제작건수가 증가하는 현재 추세를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장편영화 시나리오 개발멘토링" 과정을 개설하여 장편영화 제작을 준비 중인 대구경북 지역 영화인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공모하

였다. 당초 2명의 멘티 선발을 계획하였으나 멘티로 참여한 장건재 감독의 요청으로 최종 3명이 선발되었다. 장건재 감독은 멘티들의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를 시나리오 초고로 발전시키는 시나리오 개발 1:1 과정을 멘티 별로 총 8회 진행하였다. 아울러 단순 시나리오 개발을 넘어, 기획, 예산, 캐스팅 등 장편제작과정 전반에 걸친 폭넓고 입체적인 멘토링도 함께 진행하였다. 연출감독이자 촬영감독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작배급사 모쿠슈라를 운영하는 제작자이기도 한 그의 다채로운 이력과 재능이 있었기에 가능한 지점이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인해 대부분의 강의가 원격화상으로 진행되는 등 예년과 달리 운영상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멘토의 헌신적인 지도와 멘티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전체 과정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

**모집공고** 2020.08.14

**개별멘토링 진행**

멘티 당 총 8회  
온라인 / 오프라인 병행

**합격자발표** 2020.09.11

**프로그램 종료** 2021.02

### MENTOR 장건재 감독

한국영화아카데미 19기 촬영전공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 석사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제작배급사 MOCUSHURA 프로듀서

달이 지는 밤<sup>2020</sup> 감독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sup>2020</sup> 총괄프로듀서  
한여름의 판타지아<sup>2014</sup> 감독/각본/프로듀서  
잠 못 드는 밤<sup>2012</sup> 감독/각본/제작  
회오리 바람<sup>2009</sup> 감독/각본/제작



### MENTEE'S COMMENT

#### 김은영 개발시나리오 소다캔디

작년 10월에 시작된 멘토링이 2021년 2월의 마지막 만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장 영화인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무렵이었는데 감독님의 '지금, 현재' 영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오래 묵혀둔 고립된 이야기의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정말로 많은 힘을 받았고 환기가 되었습니다. 장편 트리트먼트 초고를 멘토링 받으면서 소재나 플롯에 대한 강의는 물론 기획 의도나 연출 의도 작성까지 꼼꼼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영화를 만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나리오 쓰는 일은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 아닐까, 혹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 (감독님의 꼼꼼한 리뷰와 격려를 통해) 용기를 얻어 갑니다.

#### 정미라 개발시나리오 공기 기타

제 상상과 현실 기획의 간극을 좁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마음가짐, 작품의 깊이 등에 대해 논하는 법, 영화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언들. 영화 현장 불모지 대구에서 감독님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몇 개월이었습니다. 더욱이 멘토링 과정을 함께하는 동기 멘티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승희님 은영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해주신 대구 미디어 센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이끌어주시는 장건재 감독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작품들이,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율해엔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 현승희 개발시나리오 소나기

안녕하세요. 지역영화 장편멘토링 과정에 참여한 현승희라고 합니다. 저는 장건재 감독님의 지도 아래 고향인 대구에서 장편 시나리오에 대한 감각을 익혔습니다. 장편이라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 도착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지치지 않도록 감독님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꾸준히 작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연출자가 지녀야 할 노력과 태도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이런 좋은 수업들이 많이 생겨 건강한 영화 생태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iscover the Cinema

CHAPTER 3 비즈니스 & 마스터클래스



# Discover the Cinema

## 영화비즈니스를 탐색하는 시간

영화와 연관된 비즈니스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영화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관련 정보를 접하거나 해당 분야의 커리어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영화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구하고, 향후 창업이나 취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과정이다. 2020년 대구영화학교는 영화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5번의 비즈니스 클래스와 1번의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였다. 해당 강의는 지역영화인, 예비영화인뿐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이

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오픈클래스로 진행하였다. 모든 강의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제한된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여희망자가 너무 많았던 마스터클래스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였다. 올해는 영화저널리즘, 영화번역, 영화마케팅, 수입배급 등 신규분야의 특강이 추가되었고 참가자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 특히 정지혜 평론가가 진행을 맡은 마스터클래스는 이경미 감독을 초청하여 감독의 연출경험과 영화인생,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비결 등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비즈니스 클래스 1강  
2020년 7월 29일 18:30 ~ 21:30

**영화저작권의 이해**  
박영목 변호사 시네마서비스 대표

비즈니스 클래스 2강  
2020년 8월 28일 19:00 ~ 22:00

**영화기자의 모든 것**  
임수연 씨네21 취재기자

비즈니스 클래스 3강  
2020년 11월 19일 19:00 ~ 22:00

**영화 번역의 세계**  
박나연 번역가 누벨콘텐츠미디어대표

비즈니스 클래스 4강  
2020년 11월 25일 19:00 ~ 22:00

**영화마케팅, 관객을 사로잡다**  
조계영 필앤플랜 대표

비즈니스 클래스 5강  
2020년 12월 11일 19:00 ~ 22:00

**실전! 영화 수입 배급**  
박혜진 옛나인필름 팀장

마스터 클래스  
2020년 12월 19일 15:30 ~ 17:30

**괜찮아? 무엇이트든**  
이경미 감독 (진행 정지혜 평론가)





### 영화저작권의 이해

**2020 07 29 수**  
 저녁 6시30분 ~ 9시30분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동대구로 471 6층)

강사 박영복 변호사 시네마테크 대표  
 SBS방송 TV오전 송은은 출연 동국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

문의 053 655 0099

OPEN CLASS 누구나 참여가능

01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교비즈니스클래스

영화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왜 저작권이 중요한가?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방법. 그리고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와 침해의 예방 방법.

difa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기자의 모든 것

**2020 08 28 금**  
 저녁 7시 ~ 10시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동대구로 471 6층)

강사 임수연 기자 시네마테크 기자  
 이 협찬 <이웃> 기자기자

OPEN CLASS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0536550099

2020년 8월 18일(화) 10:00부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홀메이지 통해  
 교육신청 / 선착순 15명

02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교비즈니스클래스

영화기자의 모든 것: 영화기자의 역할과 중요성. 영화기자의 취재 방법과 인터뷰 기법. 그리고 영화기자의 윤리와 책임. 그리고 영화기자의 경력 개발 방법.

difa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번역의 세계

**2020 11 19 목**  
 저녁 7시 ~ 10시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동대구로 471 6층)

강사 박민연 누벨레르스 미디어아트  
 (미국영화, 유럽영화 번역 전문가) / 동국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

OPEN CLASS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0536550099

2020년 11월 9일(화) 10:00부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홀메이지 통해  
 교육신청 / 선착순 15명

03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교비즈니스클래스

영화번역의 세계: 영화번역의 중요성과 역할. 영화번역의 방법과 기법. 그리고 영화번역의 윤리와 책임. 그리고 영화번역의 경력 개발 방법.

difa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마케팅, 관객을 사로잡다

**2020 11 25 수**  
 저녁 7시 ~ 10시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동대구로 471 6층)

강사 조계영 영화제작자/제작사/촬영감독 대표  
 (영화제작자/제작사/촬영감독 대표)

OPEN CLASS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0536550099

2020년 11월 17일(화) 10:00부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홀메이지 통해  
 교육신청 / 선착순 15명

04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교비즈니스클래스

영화마케팅, 관객을 사로잡다: 영화마케팅의 중요성과 역할. 영화마케팅의 방법과 기법. 그리고 영화마케팅의 윤리와 책임. 그리고 영화마케팅의 경력 개발 방법.

difa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 실전! 영화수입-배급

**2020 12 11 금**  
 저녁 7시 ~ 10시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동대구로 471 6층)

강사 박혜진 영화수입 배급사/제작사 대표  
 (영화수입 배급사/제작사 대표)

OPEN CLASS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0536550099

2020년 11월 30일(화) 10:00부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홀메이지 통해  
 교육신청 / 선착순 15명

05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교비즈니스클래스

실전! 영화수입-배급: 영화수입 배급의 중요성과 역할. 영화수입 배급의 방법과 기법. 그리고 영화수입 배급의 윤리와 책임. 그리고 영화수입 배급의 경력 개발 방법.

difa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 DAEGU FILM SCHOOL CINEMA CLASS

# 대구영화학교 시네마클래스

이경미 감독과 함께하는 With 정지혜 평론가

## 괜찮아? 무엇이든

<미쓰 홍당무>, <비밀은 없다> 부터 <보건교사 안은영> 까지 특별한 세계를 그려내는 대체불가 이경미 감독과 함께하는 연말 특별 좌담회!

2020년 12월 19일(토) 15:30~ 17:30

오오극장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37 1층)

신청링크 [bit.ly/시네마클래스](https://bit.ly/시네마클래스)

- \* 오픈클래스 이므로 누구나 참여가능 (참가비 무료)
- \* 선착순 40명 모집 (오프라인 10석, 온라인 30석)
- \* 온/오프 중 택1, 오프라인 마감 시 온라인으로 자동신청. 온라인 참여자에게는 생중계 코드 공유
- \* 수강문의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053-655-0099

주최: 대구광역시립미술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difa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후원: KOITC 영화진흥위원회, 대구광역시



## 2020 대구영화학교

주최



주관



후원



### 2020년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지원사업

운영위원장	서성희
운영위원	감정원 이경민
총괄운영	권현준
코디네이터	박수진
운영지원	김보민 이승우 조윤영

### 신규 영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책임강사

연출전공	백승빈
촬영전공	최창환
제작전공	김태훈
영화이론	박인호
현장담임	현승휘

### 현장 영화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

장건재

### 비즈니스클래스 & 마스터클래스 (강연순)

박영목 임수연 박나연 조계영 박혜진 이경미

### "Cinematic Moment" 제작

편집디자인	이승우
스틸컷	박수진 이승우
출판	고라니북스

### Copyright 2021 대구영상미디어센터

"Cinematic Moment"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은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Contact mediacenter.daegu@gmail.com

053 655 0099

Homepage dgmedia.or.kr

Facebook facebook.com/mediacenterseenoon

Instagram @daegu\_media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대구영화학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